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한덕규
편집장	이현재
발행처	외대신문사 49502-7128, 961-4151 외대학보 49502-4152, 361-4153(FAX전송)
학생기자실	4950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란면 용인리 389	
인쇄	민정
편집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 제 2153호

THE OE DAE HAGBO

제637호 1994년 11월 29일(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 급인가

1



서울 학생회관 화재 발생

학교측 학생 실화 추정 학생측 "예고된 화재"

복구 4개월...대체공간 마련 시급

지난 23일(수) 새벽 4시 15분경 서울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원인인 대해, 그리고 책임소재를 놓고 학생측과 대학당국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후 학내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화재발생 원인

화재의 원인을 놓고 담배꽂으로 인한 발화, 누전, 방화 등의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는 학생회관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더욱 큰 불로 번져 인제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학생회관 3층의 화재 감지기를 살펴보면 동이리 연립, 신악부, 견도부, 연극회 등 6개 방을 제외한 21개 방에는 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교의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할 수 위험성에 있는 감지기에 연결돼 작동하게 돼 있으나 이날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학생회관에서 당직을 수위 이희창씨는 "그날 어떤

학생이 급히 내려와 소화기를 달라고 해서 소화기를 준 후 3층에 올라갔더니 이미 불이 크게 번지고 있었다"라며 "화재감지기는 전혀 울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화재를 진화한 청암리 경찰서 소속 김용석(원장조서 담판)씨는 "화재 발원지는 견도부로 추정되며 이 불이 연립과, 정외파로 쉽게 옮겨간 이유는 각 동이리 방의 벽이 불연재가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며 "각 동이리 방의 분이 나무문이나 철문이였다면 견도부 안에서 불을 잡을 수 있었"이라며 화재소방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다.

한편 대학당국은 화재의 주요원인을 학생들의 학내 기술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학생회장 기현수(수어과) 교수는 "학생회관은 난로 사용 및 학내 기술이 금지되었으나 학생들이 술을 먹은 채 난로를 켜고 자는 일이 빈번해 화재의 위험이 많다"라고 밝혔다.

화재 피해액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견도부, 연극회, 신악부, 연립, 정외파 등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피해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피해 동이리 회장과 파

회장, 신인 단대장으로 구성된 학생회관 화재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그 피해액이 파악된 곳은 견도부와 연극회 등이다.

견도부는 호구, 도복, 호구장 등 총 1천 6백만원의 피해를, 연극반은 부대시설, 조형기 등 5백 70만원, 정외파는 책 3백권 등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피해액과 관련 부총학생회장 진 원(중앙·이문)은 "물 질적으로 입은 피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나 동이리나 나대로의 역사를 축적해 온 일련, 일지 등이 모두 타버려 학생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책

서울캠퍼스 대책위는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 이후 각 과·동이리들의 대체공간 마련, 피해보상, 학생회관의 보수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당국의 대체공간 및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학생회관 복구와 관련해 대학당국은 안전도 검사 및 원상복구에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당국은 화재 다음날인 지난 24일(목) 중정 명의의

학내시설물에 대한 이용시간 제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 어제(28일)부터 도서관입학을 제외한 학내 모든 시설의 이용은 밤 10시까지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학교의 시설물을 10시 이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진 원은 "화재 이후 피해보상 및 대체공간 마련보다 학생회관 24시간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발표한 것은 맹목한 학생자치권 탄압"이라며 "학교측은 그에게 좀더 학내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와 관련된 29대 총학생회 임무보조들은 각각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기호 1번 손일문·김재진 조는 피해보상 및 대체공간 마련을 위한 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기호 2번 유용강·정성철 조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2백 37명 중 14명 42명(64%)의 학생이 '학생회는 화재보상 요구 및 임시대체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회관의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인숙 기자)

지난 23일 새벽 발생한 화재는 관리부주의와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기회로 대학당국은 학생회관을 오후 10시까지만 한정개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종현 기자>

94농민대회 오늘 열려

UR비준 연기 주장

오늘 29일(화)에는 '발생산비보'장과 UR비준반대를 위한 94농민대회가 보라매공원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비보장을 위해 원수배가 8.1%인상과 1천2백만점 수매를 요구하고 대책없는 UR비준의 연기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각 농민단체에서는 3백여명의 농성단을 꾸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3일(토)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농민대회도 국민대회는 12.12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5일(월)에서 10일(토)사이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UR 국회비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미국의 국회비준이 공화당의 양보로 12월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사회부>



문민은 공격형(?)

▲얼마전 신문에 변화된 전압방식을 소개해 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옛 앞의 대열이 그날 밤새를 들고 지지하던 수비형 전압방식에서 2인 1조가 되어 한명은 방패를 또 한명은 전압봉을 들어 전압하는 공격형 전압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문민이 아닌 게 탄로난 마당에 전압방식을 공격형으로 바꾸는 것쯤이야 이제는 현 정부로서 당연지사인 것 같다.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남한사회의 전압방식의 발전도 획기적이었다. 전압방식의 발전은 남한사회의 변화운동의 성장과 맥을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0·70년대에는 시위가 터졌다 하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다고 한다.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며 사람들을 해산시킨 것이 그 시대의 주요 전압수단이었다고 최후반 내세를 말하면 4·19같은 커다란 항쟁을 타도려야 가능한 시절이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압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이로서 광우항쟁을 전후로 과거 일반을 파루탄이던 것이 군대 훈련용·살상을 파루탄으로, SY-44 최후탄으로 가연탄 파루탄으로 바뀌고 새로운 전압수단인 격포와 페퍼프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84년 경찰들이 교내에서 물러나면서 교문대치 상황이 찾아오자 또 다시 새로운 전압방식이 발명되게 된다. 지금의 물대포와 거기에 맞서 등장한 화염병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용환은 군부독재 시절이라 전압방식이 진전했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진다.

▲새로운 전압방식이 발명돼 왔던 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우항쟁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정권의 위기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정권의 반민중성에 대항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를 외치던 때마다 정권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악랄한 전압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정권의 강경한 전압으로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6월항쟁 때는 최후반 격포를 맞고 이현열 열사가, 8월항쟁 때는 강경대 열사가 경찰의 전압에 쓰러진 것이다.

오늘은 '발생산비보'장과 UR비준 반대를 위한 94 농민대회가 열린다. 농민들의 생계에는 이따금씩 지고 12월 초순경 UR비준안을 또 다시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작태에 대한 농민들의 마지막 절규인 셈이다. 그 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UR비준 연기'와 '대체공간'을 농민들은 또 다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다.

아마도 얼마전 TV에서 방영했던 새로운 전압방식의 연습장면을 우리는 또 다시 TV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신동현>

서울 선거 30일부터

2차 유세·정견토론회 오늘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

경·부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일(3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이에 유

권자들과 학생들의 관심과 양 후보의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8일(월) 노천극장에서 양 후보의 1차 유세가 열렸다. 기호 1번 정주보 손일문(서양·영어3)군은 "현 총학생회가 1년 동안 한 사업은 도시락판매와 노천 돔(Dome)을 설치한 밖에 없다"라며 "더욱 다원적인 정치의원이 개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호 2번 정주보 하용강(경제·행정4)군은 "자극받은 이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이론·황산 학우들의 동의없는 외국학랑 연구 센터 황산 건립을 불거진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1시 노천극장에서 2차 유세를 가지며, 유세후에는 언론회의 회 주회 정견토론회가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승호 기자>

지·면·안·내

3번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 임무보조 정책

4번

1. 다차진 안보제에 계기경과

진화 상황

6번

총학생회보의 수석에 정경

8번

'민력기법' 퍼스펙트 유럽의 실례

9번

전국 총학생회 결속 분석

10번

6. 기획위원·교수서 개명파

외대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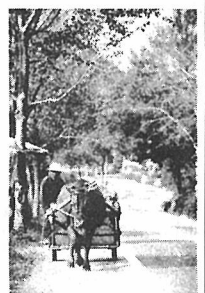
블루, 화이트, 레드
프랑스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준연기' '제형상 촉구'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청부, 국민 가릴 것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달구지를 모는 할아버지 그리고 농촌
우리는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세살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용인캠퍼스 식수대를 살펴본다

있어도 사서 마시렵니까?

식수대에 관한 홍보부족과 관리부실 지적돼

‘화산물이 막수라는 말이 있듯이 용인캠퍼스의 맑은 물은 맑은 공기
와 더불어 어느 곳에도 퍼지지 않는
지랑 거리이다. 그래서 교수와 직원
들이 물을 들고와 집으로 물을 받
아가는 모습 또한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93년 부터 봄이 일인 ‘식수
판’에는 어울리지 않게 용인캠퍼스
에도 자리가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식당의 물을 먹거나 화장실의
물을 먹던 학생들은 하나의 유일한
양 유수관에 맞먹는 식수를 사서
마시며 한 손에 가방속에 식수병을
갖고 다닌다.
‘화산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화장실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화장실
물이라는 것이 물탱크에 받아 쓰는
것일텐데, 아무리 물이 좋더라도 민
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유
영조(자연·환경 3) 과 같은 생
각을 하는 학생들은 용인캠퍼스의
식수대 설치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한 학
교측에서는 지난 10월 각 건물의 중
마다 식수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설치한 식수대는 학
생들에게 그리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각기 휴지통처럼 생긴 투박한 사각
의 알루미늄 통은 각 층의 구석에
설치해서 한달이 지난 지금도 그것
이 식수대인지 모르고 있는 학생들
도 적지 않다.

‘바꾸고난 건물의 수도꼭지는
단추같은 것을 누르면 물이 솟아나
고 솟는 물을 마시는 것일텐데, 손
가락이 만능의 놀이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위해 수도꼭지를 눌러
야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도
록 준비된 컵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김미화(서화·독일어 4) 양은 사용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지적했
다. 이처럼 미관상에서 오는 거리감
과 더불어 먼지로 얼룩진 거울 등의

불청결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하
기를 꺼리게 하는 이유의 하나가 돼
고 있다.
반면 관리부의 한 직원은 ‘학생
들은 화장실물을 그날 수도관만 파
으로 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대 이래 죽든 강수필터가 있어
정수된 물입니다. 학생들의 요구로
설치한 것인데 학생들이 휴지통인
양 파지통이들을 던져놓으니...라
며 학생들의 잘못된 공공의식을
지적했다.
화장실물을 그대로 먹는것으로
알고있는 학생들이 식수대를 이용
하기보다는 여전히 식수를 사먹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수되는 물
인지는 아무런 알람벨이 없었지
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식수대 설치됐다고해서 식수에 관
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의대인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직원이 공공의식을
갖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 직원과 학생들이 식수대를 사
용함에 있어서 조급한 관심과 배려
를 갖는다면 굳이 물을 돈주구 사먹
어야 하는 부담은 없어도 될 것이
다.

〈문화부〉

□서울캠퍼스 각과 영화제에 대해

영상속에 담긴 세계

94년 2학기 본교 서울캠퍼스에서
는 각 나라의 영화가 중심이 되
며 열렸다. 각 과에서 준비한 영화제
의외로 광고영화, 동성애 영화제
가 함께 열려 인기를 외대인의 문화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은 할리우드
영화에 독점당하고 있다고는 상
태이며 외대인 역시 할리우드 영화
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각 과 영
화제를 통해 상업성과 오락성으로
점철된 영화 외에 우리에게 익숙하

최초로 이원영화가 상영된 것이다.
조성호(중앙·이러니 3) 영화본과 모
임) 군은 ‘이러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
주기 위해 현대 이태의 실정을 가장
간 표현해 주는 영화 ‘행복한 작은
새’로 선정했다’고 말한다. 또 올해
로 제3회를 맞는 일본영화의 ‘일본
영화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그 내용
과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영화제를 준비했던 황두원(중앙·
일본어 1) 군은 ‘높은 다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비해 일본영화

라고 공연율상의 위험을 거처
지 않아 사제된 부분이 원작품 그
대로 상영했다는 점에서도 영화제
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올해들어 봄을 이룬 각 나라의 영
화제가 외대의 각 과 예술제와 함께
자리잡기 위해 해를 할 일이 있다.
영화제는 준비했던 학생들이 한결
같이 지적하는 점은 학교측의 영화
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
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상영影片的
부족이다. 프랑스 영화제 같은 경우

단추같은 것을 누르면 물이 솟아나
고 솟는 물을 마시는 것일텐데, 손
가락이 만능의 놀이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위해 수도꼭지를 눌러
야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도
록 준비된 컵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김미화(서화·독일어 4) 양은 사용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지적했
다. 이처럼 미관상에서 오는 거리감
과 더불어 먼지로 얼룩진 거울 등의

불청결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하
기를 꺼리게 하는 이유의 하나가 돼
고 있다.
반면 관리부의 한 직원은 ‘학생
들은 화장실물을 그날 수도관만 파
으로 해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대 이래 죽든 강수필터가 있어
정수된 물입니다. 학생들의 요구로
설치한 것인데 학생들이 휴지통인
양 파지통이들을 던져놓으니...라
며 학생들의 잘못된 공공의식을
지적했다.
화장실물을 그대로 먹는것으로
알고있는 학생들이 식수대를 이용
하기보다는 여전히 식수를 사먹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수되는 물
인지는 아무런 알람벨이 없었지
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식수대 설치됐다고해서 식수에 관
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의대인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직원이 공공의식을
갖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 직원과 학생들이 식수대를 사
용함에 있어서 조급한 관심과 배려
를 갖는다면 굳이 물을 돈주구 사먹
어야 하는 부담은 없어도 될 것이
다.

〈문화부〉

엄선된 작품, 자막처리까지 직접 해 학교 재정적 지원없어 어려움 커

진 않지만 예술성과 함께 작품성을
검토한 영화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외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이기도 하다.
각 과 예술제와 함께 열리는 영화
제나 단편영화제 열리는 영화제는
올들어 부쩍 늘어났다. 각 과 소모
임 활동화로 영화제에 참가 영화
제가 열리는 경우 독립영화제, 이
단편영화제 도 이름짓기만하고 있다.
지난 25일(금) 열린 이원 영화제
는 이원어과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를 통해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한
막대한 동경을 깨고 외대인이 그 나
라를 제대로 알아나가는 과정이 있
다’라고 말한다. 또 자막처리 작업
을 학생들이 직접하되나 재정적
어려움도 따르지만 일본에 대한 이
해와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
다고 진한다.
영화제 안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은 국내 극장에서 선보인 영화도 있
지만 대부분은 영화는 외국 대사를
이나 문화권을 직접 뛰어들어야 존
비한 작품들이다. 또 극장 상영작이

신방과 광고영화제와 시간이 겹쳐
장외장들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었다.
‘영화와 영상예술의 진수라는 점
을 제쳐두더라도 스크린에는 그 나
리의 시대성과 생활, 문화가 담겨
있다. 외대에서 각 과 영화제의 활성
화는 예술제와 함께 궁극적으로 이
발점되고 후진되어야 한다. 세계
화·국제화시대에서 그 나라를 알고
파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영화 또한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명수당 明水堂

국제화·세계화와 문화

동구의 외해로 인한 탈냉전시대의 UR타일에 의한 전연적
시장개방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저국의 이익만을 앞
세우는 국익우선주의적 정책변화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세계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
의 장에서는 문화 및 서비스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서구 특히 미국의 다국적 문화 산업의 해외진출이 강화
되어 나라들의 문화적 종속의 심화가 예상된다. 문화적 강국이
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나라들도 조차 최첨단 대중매체에
의한 미국 대중문화상품의 흡수 앞에 ‘문화적 정체성’의 해체를
고민하면서, 저국의 문화영역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정
체성 대응에 미련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소수의 다국적 거대 문화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적 국제화·세계
화라는 주장, 민족, 지역사회의 지나친 전통적인 문화적 유대를
해체한 뿐만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문화적 모델과 가치표현들을
접수입한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선진국 문화독점체
의 압도적인 기술력·광활적 우세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가치
와 이해, 인간 보편적인 휴머니즘적 가치에 위배될 수도 있는
문화요소들의 유입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지
적인 문화정체성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소위 국제화
대는 비아로 세계적 규모에서 문화적 ‘헤게모니’관계가 형성
되고 작동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균등한 문화적 영향력과 문화적 종속하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지본주의적 문화패러다임은 여러
나라들의 독자적인 문화발전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에 역기

문화적 권리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문화적 세계를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국제화
이 춘 길
〈본교 감사·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문화부〉

북누리 말글살이



〈16〉북누리

그 책했던 걸작, 신라시대를 돌아다니다.
내려 갔어 나는 나의 얼굴을 여백 모양이 인해서 약간 주
이 들어 발목을 제 것이 못났다. 나는 내세 북누리였다. 연호
크로마 등극 크로마를 읽고 신라국 제왕의 치마를 갈아입고 부
자연스럽게 사서거리는 인연을 붙였다.
-소설 <백제국가 노려하는 곳> 중 ‘여마녀의 마음’
〈문화부〉

95학년도 제1학기 정규 수강신청

-아 래-

1.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1994. 11. 30(수) ~ 12. 2(금) ... 3일간
2) 장소: 소수학과 학과장실 및 부전공 지도 교수실
3) 강의 시간표 및 수강신청 OMR카드는 수강신청 당일
소수 학과장실에서 배부함.
(단, 컴퓨터용 씨인펜은 각자 지참)
2.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당일 배부받은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에 관한 지
침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OMR카드를 작성하여 학과장 및
부전공 지도교수의 확인 난인을 받은 후 학과장실에 제출한
다.
3.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규제 조치
등록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업성적표
상 그 해당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0.00으로 표기되고 학사
경고 대상이 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
을 참고 할 것.

* 1994학년도 제2학기 성적학인 및 정정기간 변경안내

변 경 전	변 경 후
1995. 2. 21(화)	1995. 1. 16(금)
~ 2. 23(목)	~ 1. 20(금)

1994. 11.

교무처장

94학년도 제2학기 기말 시험 및 추가시험

-아 래-

1. 시험기간:
1994. 12. 9(금) ~ 12. 16(금) ...
6일간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담당교수 재량으로 평가
(필답고사, 과제를 부과,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3. 추가시험:
가. 대상자: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 시험
을 모두 결사한 자로서 1회 이상 유고
결석한 경우에 한 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1994. 12. 19(월) ~ 12. 21(수),
해당대학 교과과
다. 추가시험 실시: 1994. 12. 23(금)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A⁺ 이하
(학칙 제36조)

1994. 11.

교무처장

9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199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의 개설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니 수강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람.

-아 래-

1. 목적
가. 정규학기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방학기간 중에 취득하
게 하고
나. 하위급 성적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 취득을 도울 수 있도록 함.
2. 수업 기간: 1994. 12. 19(월) ~ 1995. 1. 6(금) ... 16일간
(토요일 포함)
3. 주당 강의 실시일: 주 6일강(정규학기의 주당 1시간 교과목
은 통산 16시간)
4. 수강 장소: 본교 미문동 소재 강의실
5. 개설 대상 과목: 가)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교과목
나) 본교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
* 수강인원 30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개설하게 됨으로
수강 희망자는 빠짐없이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조서서
를 제출하기 바람.
6. 수강 신청 최대제한: 6회점 이내
(단,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94. 2학기 재학생에 한하며, 7개학
기 총 취득학점이 134학점(법학과 144학점) 이상인 학생은 그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7. 수강희망과목 조서일: 1994. 11. 30(수) ~ 12. 2(금) ... 3일간
8. 조서서 배부 및 접수처: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9.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994. 12. 12(월) ~ 12. 14(수)
10. 수강신청 및 등록처: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함.

1994. 11.

교무처장

외국어회화 재학생 과정 모집

1. 모집학과·인원 및 시간

과목	수업시간	단 계	수업요일	학급정원
영 어 회 화	제1반 17:30-18:20	(1,2,3,4)반	월,목,금	15명
일 본 어 회 화	제1반 17:30-18:20	(1,2)반	월,목,금	15명
2. 교육기간
제21기: 1995. 2. 6(월) ~ 4. 14(금) (10주)
제22기: 1995. 4. 17(월) ~ 6. 23(금) (10주)
3. 지원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타 대학교 학생도 수강 가능)
4. 제21기 등록기간 및 접수처
1994. 12. 1(목) ~ 1995. 1. 18(수)까지 본 연수원 교과과(등록
사 학생증 지참)
5. 제출서류
등록원서(본 연수원 교과과 비치), 증명사진 1매(수강생 발급
용)
6. 수강료
가. 신규등록: 240,000원 일시납(교재대 본인부담)
나. 재등록: 220,000원 일시납(교재대 본인부담)

*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과과, 961-4174/5, 962-7119

외 국 어 연 수 원

□전국대학 '95 총학생회 선거 상황 분석

'쟁점'없는 현란한 '이미지' 학생운동에 대한 심화된 고민 필요

정책의 신선함보다 선거분위기 '파격'에 신경쓰기도 자기혁신·당당한 입장표현에 지지 모아져



학생운동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던 94년 소위 '전환기'라는 상황에서 '95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위상정립 시기로 다가왔다. 이제 선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막을 내리고 선거결과가 접어들고 있다.

분류 방식이나 명칭의 애매모호함은 존재하지만 NL계열, PD계열(대정경, 학생연대, 전학연등)에서는 연합공천으로 후보를 낼 경우가 많아 통틀어 이렇게 표현하겠다면, 21세기전보학생연합(21세기), 비운동권(비권)으로 분류해 4년제 대학 선거결과(11월 28일(월) 한총련 집계 상황)를 살펴보자.

PD계열 낙선, 비권 당선 를 노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150여개 4년제 대학중 195개 대학의 선거결과를 보면 NL계열 61개, PD계열 18개, 21세기 7개, 비권 15개, 기타 4개 대학에서 각각 당선되었다. <관련기사 8면>

결과만을 보자면 NL계열은 지난해보다 몇배로 더 당선되는 편이고, 비권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반면 PD계열은 많이 낙선했다. 21세기 또한 작년 서울대에서 당선된 '생활진보대중정치대학생연합'과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진보학생연합'이 연합해 지난 9월에 출범한 연합조직임에도 불구하고 7개 학교 밖에 당선되지 못

했다.

공약 비수, 고민도 부족

올해 선거를 이끌어왔던 각 후보들의 핵심공약과 공약중 공약적인 부분은 교육개혁-교육내용부터 학내복지문제까지... 학생의 체제 강화와 학생들의 정속 학습을 돕는 방안이 대안으로 모아진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NL계열은 학생들의 정속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면서 통일조국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PD계열과 21세기에서는 주로 대학·대학생·학생운동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한 선거운동에서도 이미지 변화, 구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다. 비권은 기존 운동권이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과 함께 학내 교육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쟁점' 없는 선거

이러한 내용이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라면 '95 총학생회 선거'를 주도한 '쟁점'은 무엇이었나. 한총련 조직위원장 정종이군은 한마디로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총학 선거기간 후보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벌이거나 학생들이 공명적으로 관심을 들인 사건이 이번 선거에서는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 후보들의 공약이 정리돼 있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분산돼 있었음에도, 기간 학생회 사업들을 총괄하고 전방을 명확하게 세우는

작업도 부진했다고 본다. 그 원인은 '자기혁신의 부재'라는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단순히 시대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공약들이 많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장동우'라는 통일원 후보를 예로 들어보자. '이미' 통일원 통일정책을 선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쟁점'이 없었던 것이 전반적으로 선거분위기가 가라앉고 투표율이 떨어지는데도 적지않은 작용을 했다고 말한다.

실제 올 선거의 화두였던 '변화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운동의 모색'이라는 명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학생운동의 변화를 내세우며 나왔던 연세대 신운동권, 서울대 총학생회-지진과 21세기-에 대한 평가도 학생운동에 고민하는 후보들이 하면서 변화의 지평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보다는 학생들의 투표권으로 진정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연세대, 서울대에서 표명했던 '네트워킹'이 학내 학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올해 몇몇 다른 대학에서 새롭게 '네트워킹' 학생회를 이어나가는 것도 이런 행세를 반영한다.

학생운동의 대중화 고민 부족

학생운동의 변화라는 명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각 정당에서 공명적으로 제시된 공약이 '학

생들의 정속 학습을 돕는 방법과 대중적인 사업'에 대한 것이다. 학생운동 변화의 요구를 선거에서 얼마나 충족시켰는가에 대해서 한총련 정책위원 박종원 군은 '한총련의간계전운동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의 요구는 학내문제 뿐 아니라 정치, 통일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골고루 존재했다. 단지 이전 학내문제에 무관심하기까지 했던 사업내용에 문제점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이었고, 학생운동 변화의 핵심은 학내문제라는 사회분류는 학생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복지개선에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놓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이 작년대 한가지로 보인다'라고 평가한다. 대학 학생회와 변화뿐만 아니라 한총련의 변화도 공명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일반학생들에게 한총련은 의미있는 조직임에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느낌이 부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정권이라고 단언하고 있을 수 있는 연세대 학생을 한총련에서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비권, 조직력 확대·선거운동의 세련화

이번 선거의 특징중 하나가 비권이 많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예년 선거에서 비권이 동원력을 중심으로 벌어진 조직

력이 없이 나와서 주먹구구식 선거운동을 했던데 비해, 올해에는 조직력이 확대된 곳이 많고 운동권과 연합할 곳도 있다. 전국대에서 당선된 김용두, 임성규 후보는 지난 8월부터 전국대의 핵심 사안이었던 총학생회 문제와 관련 '현실적인 이사장 퇴진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활동하면서 총학생회의 부능함을 비판하며 일제히 선거출마의 기반을 닦아왔다. 경희대(수원)에서는 총학생회비리 4개년대, 동아리연합회에 조직적인대비를 이른 비권후보들이 나왔다. 중간에 학교당국과의 결박이 밝혀진 외대, 산업대후보는 자격박탈이 되었으나 총학과 공대에서는 비권후보가 당선되었다.

NL-PD 대립구조 무너져

각 정당의 당선자를 놓고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무리다. 각 학교의 특수성이 많이 존재하고 예년과 다르다. NL, PD등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기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입장을 숙착하고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했다는 쪽에서는 조직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힘들게 선거를 치렀거나, 비권의 비권에 베풀어 주는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신운동권이 당선되었던 연세대에서 '공신들의 건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PD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더라도 '대중적 운동의 요구'라는 요인 말고도 '당당한 자기혁신의 표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세나 그렇듯이 기존 총학생회 사업평가 또한 영향을 주었다.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던 부산대, 홍익대, 전국대, 외대(용인), 경희대(수원)에서 '94총학생회와 다른 입장의 후보들이 당선'된 것은 한총련단위의 연대부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기보다는 학생들이 바라본 학생회의 역할에 미진했던 것에 대한 타당한 평가였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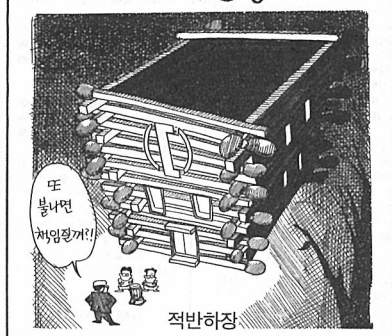
기호없게 등 선거공명제, 실패 못거쳐

'기호없게' 등 선거공명제가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기호를 없앴으로써 관심을 크게 하려던 것이, 기호없다는 대안-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서 오히려 무효를 얻었다는 지적들이 많다. 공명제표지 제작도 후보들이 제각기 자료집을 토대로 만들면서 선거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등 선거공명제의 장점을 다 그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95 총학생회 선거'는 보다 심화되어야 할 학생운동에 대한 고민, 세련되면서 통일된 기조로 모아지는 정책들의 폐해들을 낚으면서, 학생운동의 변화는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교훈을 주고 있다.

<전국대학선거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외대만평



적반하장

지방 지회화대를 맡고 있는 상황 현상에는 주민들의 지회요구도 꾸준히 늘어나 지역내 행정·정치·경제·문화·주인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리위원회에서 비수를 타고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리시,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보니 인구 이동률이 80%로 대부분의 주민이 주거지로 이곳에 자리잡고 있을뿐 생활환경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소비도시로서 여편이나 음식점(1천5백개), 술집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을 직업으로 하는 인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막노동자도 5만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큰 공장들은 이전하고 3~4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열세대의 기업은 늘어나고 있다. 또 이 노동자들의 직업이 외국인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의 이중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리시가 지닌 이러한 지역적 특

시민운동과 재야운동의 조화

일상적 민원사항 모아 교통등 도시문제 해결

성에도 구민들의 지역운동은 나름대로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 구리의 지역운동은 큰 흐름은 두가지를 이루고 있다. 87년부터 '원전폐지'의 직접행 운동의 노동문제 중심으로 줄기차게 투쟁을 해온 재야운동과 91년 광역선거 이후 제2회 민선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벌여온 시민운동이다.

'경기'를 무기로 민주시민운동 실현의 의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진(41)씨는 "구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이지만 달팽이 같은 도시입니다. 외지인의 유입률이 많고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죠"라며 구리의 지역운동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시

작은 주민들의 일상적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한다. 91년부터 시작된 버스 구간요금 운동은 1년 이상 시를 상대로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구리에서 강 건너까지 버스노선 신설을 위해 주민들의 힘으로 교통문제의 미비함을 다소나마 해결했던 것이다. 93년 교통지구에 25인명의 대대적 배치

가 전철화에도 교통편이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의 노력으로 버스편을 만들었고, 정발원에서 자로 가는 버스를 40대로 증설했다.

그리고 구리시 안전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구리시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15년4천호(W)의 고압선을 한강변 쪽으로 옮기는 것도 이뤄졌다. 현재 민원사항을 위해 매주 토요일 빌딩 상담소를 열고 있다.

구리시의 지역운동은 주민의 민원에서부터 지역활동으로, 그리고 더욱 차원높은 지역활동으로의 전환단계에 놓여있다. 앞으로 구리시 지역운동은 교육과 환경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구리노운동상담소 박부흥 소장(38세)은 "구리지역은 청소년 범죄가 전국적으로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이 지역 청소년이 1명도 많지 않아요"라며 "이러한 현실을 막기 위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디오전문지를 정기구독하는 부장님 사시지를 달마다 꼭 챙겨읽는 신입사원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포용력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회사 '현대자동차'

몇개월전 박부장이 젊은이들이 보는 비디오잡지를 정기 구독하셨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이유는 신세대와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신 비디오무비는 뭐고, 요즘 뜨고 있는 비디오스타는 누구고...

반면 신세대가 무조건 경박하고 감각적이라는 편견은 절대 금물이라고 장르는 김포사원은 활간사시지는 물론, 경제지까지 골고루 읽는 사사전문가/이렇게 현대자동차에는 서로의 사상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져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친구, 좋은 차
현대자동차



4450

